

# 민주당 공천 파열음에 광주·전남 고소·고발 '시끌'

### 경쟁·지지자 등 폭로...금품 살포·허위사실 유포 등 광주청, 21건 적발...공직자·현직 의원 개입도 수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등을 둘러싼 파열음이 광주·전남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외에도 경쟁·지지자 간 폭로로 관련 사범

이 늘어나면서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난 8일까지 21건·25명의 위법 행위를 적발 또는 인지했다. 이 중 4건·4명은 불송치 결정 또는 다

른 경찰청 이첩으로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7건·21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나 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수사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 전남경찰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입건 현황과 관련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 의뢰된 사건 가운데 일부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의 경쟁자 또는 지지자 폭로를 통해 내용이 드러났다. 최근 광주 동남을 지역구 경선에서 승리한 안도걸 예비후보의 캠프 관계자

들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게 일례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안 예비후보의 경선 경쟁자인 이병훈 의원이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선거운동원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안 예비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관련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광주 북구갑 지역구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정준호 예비후보도 맞붙었던 조 오십 의원이 공개적으로 '불법 전향방' 운영 및 '허위 사실 공표'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광주지역 예비후보 중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무관하게 불법 금융투자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도 있다. 전남에선 목포 선거구 경선 후보자가 '이중투표'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순천시 전·현직 공직자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넘어 개입하는 등 '관권선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예비후보 간 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이 밖에도 한 현직 전남도 의원은 특정 예비후보를 위한 모임을 열어 업적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은 오는 21-22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하루 전날인 9일까지 13일간이다. /안재영 기자



나라사랑...독립만세운동 재현 광주3·10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지난 8일 오후 남구 양림동 수피아여고에서 열려 학생과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1919년 3월10일 수피아여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만세결기는 양림교-광주천변로-부동교(옛 작전장터)까지 애국선열들이 거행했던 발자취를 되새기며 자주독립을 염원했던 만세운동이다. <광주남구 제공>

## '공무상 비밀누설' 전 광주청 책임수사관 '파면'

### 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동부경찰, 최종 결정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재직 당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 동부경찰서 모 지구 대 소속 A(63) 경위가 파면됐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경위가 줄곧 검찰의 위법수사를 주장해 온바 징계 절차를 보류해왔으나 실형 선고에 따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2019년까지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으로 근무했던 A 경위는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 A 경위는 2016-2019년 사이 주택개발사업 입찰 담합·조항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경찰을 집행하지 않았던 것과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해당 사건 제보자의 신원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수사 중이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비위 연루 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은정 기자

## 5·18 대변인 윤상원 열사 '계엄군 총탄 사망'

### 조사위 결과보고서... '최후의 항쟁' 숨진 14명 중 9명 다발 총상

계엄군으로부터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숨진 도청 수습대책위원회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사망이 43년 만에 '총상'으로 밝혀졌다. 1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 안에서 숨진 윤 열사의 사인은 '계엄군에 의한 총상'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윤 열사의 사망 원인은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조사 활동으로 명확히 규명됐다. 당시 광주지검 검시 기록에 따르면 윤 열사의 사망 원인은 우측 허벅지 자살상 및 허약골 등 3도 화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 때문에 일각

에서는 계엄군이 윤 열사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검안의·목격자 진술과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법의학 자문 의견 등을 토대로 윤 열사가 1980년 5월27일 오전 도청 회의실 2층 강당 무대 위에서 복부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계엄군이 던진 섬광탄에 의해 시신에 화상이 남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조사위는 상무총정작전(도청 진압 작전)과정에서 사망한 이들의 사인도 규명했다. 해당 작전으로 당시 민간인 2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24명(13명 단발·11명

다발)이 계엄군의 총탄에 사망했다. 사망자 대다수는 머리와 얼굴, 흉·복부 등 상체 부위에 피격당했으며 이를 통해 자위권 발동 시 수칙인 '하반신 사격' 지침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5월27일 '최후의 항쟁' 당시 도청 안에서 항쟁하다 사망한 14명의 명확한 사인을 밝혀냈다. 당시 무장 상태였던 14명은 모두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 이 중 9명이 다발성 총상, 5명이 단발성 총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사망자의 총상 흔적이 1개라는 사실을 토대로 당시 현장 교전이 격렬한 게 아닌 계엄군의 압도적 화력에 의해 시민군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수혁 기자

### 여수소나무 묘목발불...800그루 손실

여수 한 소나무 묘목밭에서 화재가 발생, 묘목 800그루가 손실됐다. 10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8분께 여수시 돌산읍 노고산 인근 한 소나무 묘목밭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1대, 소방차량 6대, 소방인원 22명을 출동시켜 화재 발생 36분여만인 오후 3시14분께 완전했다. 화재가 산불로 번지거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소나무 묘목 밭 총 1천500여㎡ 중 80%가 불에 탔으며 소나무 묘목 1천주 중 800주가 소실되거나 불에 그을려 소방추산 3천52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나무묘목밭 인근에서 잡풀을 소각하던 중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재영 기자

## 전남서 교통 사망사고 잇따라

전남지역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0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9분께 해남군 화산면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5t 화물차를 운전하던 A(60대)씨가 앞서가던 B(60대)씨의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다. 경찰은 추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7일 오후 4시께에는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구간 갖길에서 C(70대)씨가 D(60대)씨의 1t 화물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C씨가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는 당시 고속도로 시설물을 들이

박는 단속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을 갖길에 세우고 차 밖에 나와 있다가 후속 사고를 당했다. /안재영 기자

### 순천시의회 식사중호흡곤란...의식불명

순천시의회 의원이 식사 중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10일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12시32분께 순천시 장애인재활센터에서 'A' 의원이 음식을 먹다가 숨을 못 쉰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의원은 심정지 상태였다. A 의원은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 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정기 기자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http://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